

제7강 불교에서의 의식·마음과 금강경 독해

(1교시)

◆불교의 의식과 무의식

※ 학습목표: 불교의 내면적 이해를 더한다.

▲불교의 의식과 무의식

-정신의학자들은 우리의 의식 경험들의 중요 부분이 무의식 세계에서 이루어지고, 무의식이 의식에 영향을 준다고 한다. 그 중, 불교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의식이 무의식에 미치는 영향이다.

-무의식이 끊임없이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명熏습(無明薰習)이다. 반대로 진여(불교에서의 진리)가 무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진여熏습(眞如薰習)이다. 의식이 무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.

-불교가 일종의 문화적 산물로 인류에 공헌하는 점이 있다면 무의식 영역에 대해 넘나들기 쉽다는 점이다. 명상적 테크닉으로 무의식을 들여다보기 용이하며, 잠재의식을 의식화 시키는 부분들이 인류에 공헌하는 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.

▲化生

-화생은 의생신이다. 성적 결합으로 태어나지 않고 마음에서 태어나는 것이다. 그래서 그 태생에 있어 욕망이 들어가 있지 않은 깨끗함이란 뜻이다.

-과거의 패러다임 내에서 인간의 욕망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섹스를 바라보는 관점은 상당히 부정적이었다. 의생신도 처음에는 그런 선상에서 출발한다. 그러다가 대승보살의 관념이 생기면서 업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, 어디에 태어났다는 마음으로 태어난다. 즉 후대에는 보살의 출생을 화생/의생신이라 표현한다.

▲수자상

-수자상은 산스크리트어로 jiva다. 이는 life force라는 점에서 기독교적 soul과 닮았다. 그러나 수자상도 역시 부정되어야 할 허위관념이라는 점에서 기독교적 전통의 soul과 다르다.

▲주객관계에서 떠날 수 있는가?

-주객의 이원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. 다만 기본적으로 인정하되, 그것이 본질적으로 이원적이나 아니냐를 문제 삼는 것이다.

-불교도 주객이 분리된 세계를 인정한다. 그러나 너무 열반이나 본체만 강조하다보니 다름에 대해서 놓치는 경우가 많다. 주객의 이원성을 부정하는 것은 깨달은 입장에서 본 것이다. 실상 우리의 일상적 삶은 주객과 타자의 분리에서 시작된다.

(2교시)

◆대승불교의 수행방법과 금강경 독해

※학습목표: 금강경 독해로 불교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본다.

▲보시(布施)

-초기 불교에서는 깨달음의 길로 팔정도를 수행하였다. 대승불교에서의 수행방법은 육바라밀이다. 바라밀은 완성이란 뜻이고, 육바라밀은 즉 6가지 완성이란 뜻이다.

-육바라밀의 첫 번째는 보시다. 보시는 perfection of giving이다. 이는 아상, 인상, 중생상, 수자상이 없는 상태에서의 giving이다.

-초기 불교에서는 누구에게 주느냐가 중요했다. 하지만 perfection of giving에서는 주는 이의 마음이 중요하다.

▲보시를 하라

「復次 須菩提 菩薩於法 應無所住 行於布施」

-부차 수보리 보살어법 응모소주 행어보시

-또한 수보리아, 보살은 응당 법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를 하여야 한다.

▲法과 我에 머무르지 않음

「所謂 不住色布施 不住聲香味觸法布施」

-소위 부주색보시 부주성향미촉법보시

-말하자면 색(法)에 머무르지 않고 보기하고, 성향미촉법(我)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해야 한다.

▲法은 타자인가?

-나와 타자라는 이원적 관계에서는 그렇다. 하지만 구체적 내용이 다르다. 불교에서 법은 어떤 대상 자체가 아니라 나에게 인식된 대상이다.

▲육바라밀은 사단의 하나인가?

-팔정도는 정견으로부터 시작해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 하나하나 나아가는 방법이다.

-육바라밀은 보시·지계·인욕·정진·선정으로 처음엔 보시(perfection of giving)의 완성을 말하고 마지막에 perfection of wisdom을 말한다. 그런데 이 보시·지계·인욕·정진·선정은 perfection of wisdom에 인도되어야 한다. 그래서 육바라밀은 팔정도와 같이 순차적인 것이 아니다. 즉 순서 자체는 비슷하지만, 수행방법은 전혀 다르다. 출발점에서 이미 완성되어야 한다.

-출발점에서부터 완성되는 perfection of wisdom은 공성(空性)에 대한 이해다.

▲인식론적으로 있다 또는 없음을 어떻게 보는가?

-불교는 현상학과 비슷하다. 현상학은 인식론적 기반 하에서 존재를 이야기 한다. 인식론 하에서 나에게 어떻게 인식되느냐의 문제지, 실제로 있다 없냐의 문제가 아니다.

